

基督教와 민족思想

—島山思想을 中心으로—

安 秉 煜*

- 一. 島山の 힘의 哲學
- 二. 民族的 自覺과 自信
- 三. 民族的 訓練과 改造
- 四. 民族的 理想과 使命

一. 島山の 힘의 哲學

1876年 日帝가 우리에게 不平等條約을 강요하고 한국 侵略의 발판을 構築하기 시작한 후 1945년의 8·15 解放에 이르기까지 약 70年間의 韓國史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亡國의 過程과 獨立鬪爭이라고 하겠다.

民族의 獨立과 國權의 回復은 우리 歷史의 至上命令이요, 根本課題였다. 우리 민족의 모든 노력과 에너지가 이 한 목표에 집중되었다. 「민족의 독립」이라는 목표는 모든 목표에 優先했다. 그것은 온 국민의 마음 속에 精神的 動員令을 내릴 수 있는 無上命令이었다. 민족독립 國權회복을 위하여 투쟁할 수 있는 宗教勢力으로서 東學과 佛敎와 改新敎와 天主教와 유교(종교는 아니지만)가 있었다. 그리고 一般民衆의 潛在的 에너지가 있었다.

그중 淸주교는 한국傳來 이후 韓末의 수차에 걸친 迫害와 탄압으로 그 主軸세력이 꺾이었던 때문에 民族運動에 나설만한 힘이 이미 상실되고 말았다.

유교는 韓末의 용감한 抗日義兵運動으로 많은 人材와 세력이 日帝에 去勢되었기 때문에 抗日鬪爭에 나설만한 힘이 없었다. 3·1革命의 民族代表 33人 중에 유교系 지도자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유교의 指導的 人材가 이미 고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佛敎는 韓龍雲先生을 위시하여 少數의 민족지도자는 있었지만 그 전체적 세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민족운동에 기여할 힘이 없었다.

* 文理科大學(서울) 哲學科 敎授

종교사상과 民族思想이 깊이 결부되어 있는 天道教는 抗日運動의 큰 潛在力의 하나였지만 동학革命의 挫折로 그 主力이 쇠약해졌었다.

민족주의 思想과 運動에 가장 큰 主導的 役割을 담당한 것은 改新教였다. 개신교는 한국 민족운동의 中心的 領導세력이었다.

3·1운동의 先鋒이 된 民族代表 33人的 半이 기독교系の 지도자였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만큼 人材의 資本과 抵抗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天主教는 李朝末에는 큰 迫害를 수차 당했지만 日帝의 박해는 거의 받지 않았다. 박해의 대상이 될만한 민족운동과 人物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신교는 일제의 탄압과 迫害를 수없이 겪었다. 특히 일제의 3大박해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기독교의 指導級人士를 총망라해서 탄압한 1911년의 百五人事件이요, 둘째는 3·1운동의 교회 탄압이요, 셋째는 1937년의 神社參拜 반대에 따른 기독교측 學校와 교회에 대한 탄압이었다. 崇田大의 前身인 崇實專門學校를 위시한 長老教系列의 18개 학교가 廢校의 비운을 당했고 朱基徹 목사를 비롯하여 60餘名의 목사와 교역자가 항일투쟁으로 獄苦를 치르고 殉教를 하였다. 이것은 결코 적은 일이 아니다. 한국 기독교인의 民族的 良心과 信仰의 勇氣를 웅변으로 표현하는 놀라운 義舉다. 일찌기 春園 李光洙 선생은 1917年 青春誌에 한국 기독교의 功過에 대한 卓論을 발표한 일이 있다. 必讀할만한 문장이다.

한국의 改新教는 민족思想과 近代化에 얼마나 기여 공헌하였는가. 우리는 일곱 가지의 功績을 들 수 있다.

첫째는 西洋 新文明의 導入이다. 어두운 한국사회에 歐美의 새로운 문명을 제일 먼저 도입하여 文明開化와 自由人權의 先驅者가 된 것은 개신교 교회와 教系학교였다.

둘째는 全國의規模의 民族教會를 창건하여 민중에게 信仰의 福音을 전파하고 人格과 自由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덕을 高唱했다.

셋째는 많은 학교와 병원과 奉仕기관을 세워 民族敎化와 사회福祉에 공헌했다.

넷째는 廢娼運動 禁酒禁煙의 節制운동을 위시하여 社會改革운동에 앞장을 섰다.

다섯째는 민족의 많은 지도적 人材를 배출하여 민족사상을 고취하였다.

여섯째는 聖書와 찬송가의 간행으로 文盲打破에 선봉이 되었다.

일곱째는 教會가 중심이 되어 農村계몽운동의 前衛的 旗手의 역할을 담당했다.

개신교가 韓國의 民族的自覺과 近代化의 추진과 社會改革에 기여한 공로는 실로 막중하였다.

최근 百年동안에 기독교계에서는 많은 民族的 指導者가 배출했다. 교회는 人材의 위대한 貯水池였다. 雲南 李承晚, 月南 李商在, 南岡 李昇薰, 古堂 曹晚植, 翰西 南宮德, 島山 安昌浩 등 우리 나라 屈指의 인물들이 모두 改新教 出身이다.

그 여러 인물 중에서 民族運動의 中樞의 영도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었다. 그는 一生동안

에 학교를 셋이나 세운 뛰어난 教育者요, 60平生을 민족 독립운동에 헌신한 愛國의 政治家요, 탁월한 民族經綸의 理論과 方案을 가졌던 先覺의 思想家였다.

도산이 민족의 다른 지도자와 크게 달랐던 점은 그에게는 獨立運動의 악전고투의 體驗에서 얻은 救國濟民의 思想이 있었고 民族自力更生의 體系的 理論이 있었고 社會改造의 方案과 理念을 갖고 있었던 점이다. 그는 한낱 정치가가 아니었다. 위대한 思想家였다. 이것이 도산의 가장 뛰어난 점이다. 그의 사상의 根本 基調를 이루는 것은 民族思想과 敬天愛人의 기독교사상이었다.

그는 1894年 16歲때 宣教師 언더우드가 설립한 救世學堂(후에 敎新學校가 되었다)에 입학하여 長老敎에 入敎, 洗禮를 받은 후 1938年 61歲에 獄苦로 인한 病患 때문에 殉國할 때까지 篤實한 기독교 信仰人으로서 살았다.

그는 中國에서도 그랬고 國內에서도 그랬거니와, 敎會에서 수없이 說敎를 하고 愛國연설을 했다. 敎회는 島山이 民族魂과 愛國思想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말씀의 殿堂이었다. 우리 나라 기독교 百年의 最高人物을 든다면 도산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그의 信仰과 人格과 思想과 生活과 行動의 基調音을 이루는 것은 기독교의 精神이었다.

그러면 島山은 어떤 民族思想을 갖고 있었으며, 어떤 方法으로 민족運動을 전개하였으며, 한국민족의 理想과 進路를 어떻게 定立하였던가. 한국의 民族運動은 그 方法論을 基準으로 구분할 때 네 갈래로 나뉘어 진다.

첫째는 武力行動派다.

무력의 힘으로 민족獨立을 爭取하자는 것이다. 韓末의 義兵運動, 滿洲와 中國의 武官學校를 중심으로 한 독립군운동, 金九先生을 중심으로 한 義舉運動(尹奉吉, 李奉昌의 의거), 李東輝를 중심으로 한 急進論者들, 모두 이 계열에 속한다. 武力抗爭을 외치는 그 氣像은 偉大하다. 그러나 군대도 무기도 자금도 없는 狀況에서 武力에 의한 獨立爭取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둘째는 外交派다. 李承晩, 金奎植 등이 주축이 되어 美國을 중심으로 한 國際어론에 호소하여 민족의 獨立을 획득하자는 것이다. 1918年 世界를 휩쓴 민족自決主義는 이러한 운동에 拍車를 더욱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實現性이 희박한 방법이다.

세째는 共產主義者의 민족운동이다.

1917年의 러시아革命과 레닌의 民族解放運動에 자극되어 階級革命으로 민족獨立을 쟁취하자는 것이다. 이것도 실현성이 없는 方法이었다.

네째는 實力準備派다.

島山은 이 계열에 속하는 代表의 人物이다.

1910年 亡國을 앞두고 민족의 많은 지도자들이 國外로 脫出하여 中國 靑島에서 獨立運動의 方略에 관하여 會議를 열었다 이것이 유명한 靑島의 지도자회의다. 독립운동의 방법에 관하

여 二大主張으로 갈라졌다.

하나는 李東輝를 중심으로 한 急進의 行動派였고 또 하나는 島山을 중심으로 한 漸進的 準備派였다. 나라가 亡한 이 不幸한 판국에 당장 도끼건 총이건 폭탄이건 들고 나아가서 日本과 武力抗爭을 전개하자는 것이 급진파의 주장이었다.

島山은 그들에게 힘의 準備를 역설했다. 싸우려면 싸울 수 있는 힘을 준비해야 한다. 무기도 彈藥도 軍資金도 없이 어떻게 맨주먹으로 싸울 수 있는가. 民族독립에는 월대한 계획과 치밀한 準備가 있어야 한다. 教育을 일으키고 產業을 진흥시키고 人材를 養成하고 民族獨立思想을 注入시키면서 鬪爭力量을 漸進的으로 착실히 준비하는 것이 民族獨立의 正經大道라고 도산은 외쳤다. 그러나 성급한 急進派의 지도자들은 도산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島山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漸進的 實力準備를 하는 길밖에는 民族獨立의 大業을 成就하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싸우기 전에 싸울 수 있는 民族實力을 準備하고 저축하자는 것이 島山의 기본 構想이었다. 島山思想은 한 마디로 말하면 민족의 힘의 思想이요 힘의 哲學이다. 民族의 自主獨立과 自力更生의 實力養成運動을 그는 강조했다.

도산은 1921년에 上海에서 海外의 여러 同志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 편지의 서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이것이다. 여러분은 <힘을 기르소서. 힘을 기르소서> 이 말씀이다.」 이 간절한 말 속에 島山思想의 핵심이 잘 나타나 있다. 이 書翰은 도산사상의 근본을 말한 중요한 서한이다. 그의 힘의 사상, 힘의 철학의 골자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힘의 法則이 작용한다. 萬事는 힘의 產物이다. 일은 힘의 열매다. 힘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요, 혼자 땅에서 솟아 나는 것도 아니다. 기르면 생기고 안 기르면 안 생긴다. 우리가 믿고 바랄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밖에 없다. 오늘도 힘 없음을 탄탄하지만 말고 힘은 기르면 생긴다는 것을 믿고 10년이 걸리건 50년이 걸리건 民族의 自主力, 根本力을 길러야 한다. 이것이 그 편지의 要旨이다. 도산의 말을 몇군데 인용하기로 한다.

세상의 모든 일은 힘의 產物이다. 힘이 적으면 적게 이루고 힘이 크면 크게 이루며, 만일 힘이 도무지 없으면 일은 하나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目的을 達하려는 자는 먼저 그 힘을 찾을 것이다. 諸君이여! 일은 힘의 產物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가. 이것을 믿고 힘을 찾으면 그 힘은 어디서 오겠는가.

千思萬慮하여 보아도 우리의 獨立을 위하여 믿고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 동지여!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고 우리의 힘을 바라고 우리의 힘을 기릅시다. 오늘 우리의 힘없음을 恨하지 말고 힘만 있으면 成功할 줄을 깊이 깨닫고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우리에게 있는 마음과 있는 뜻과 있는 힘을 다하여 努力합시다. 세상 萬事에 작고 큰 것을 막론하고 일의 成功이라는 것은 곧 힘의 열매입니다. 힘이 작으면 성공이 작고, 힘이 크면 성공이 크고, 힘이 없으면 죽고 힘이 있으면 사는 것이 하늘이 定한 原理原則이외이다.

오늘에 가장 힘이 많다고 사랑하는 그 민족들의 근본을 돌아보면 본래 하늘에서 그 힘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외다. 없는 가운데서 적은 가운데서 그와 같이 힘이 있는 地境에 이른 것이외다. 그러므로 우리 무리는 힘을 기르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속히 쉽게 되지 않는다고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落心하지 말 것이외다. 오직 大韓民族의 生命은 힘을 기르고 못기름에 달린 줄을 깊이 자각하고 굳은 決心으로 나아갈 뿐이외다. 꾸준히 나아갈 뿐이외다.

옳은 것으로 깨달은 것은 利롭거나 害하거나 成하거나 敗하거나 그냥 꾸준히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나의 天職이요 本務인 줄을 깨달읍시다. 우리 앞에는 順境보다도 逆境이 많습시다. 쉬운 것 보다도 어렵고 험한 것이 많습시다. 大韓民國을 건지려는 큰 뜻을 세운 우리 무리는 이것 저것에 彷徨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自覺으로 세운 主義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뿐이외다. 다시 부탁하노니 여러분 同志는 부지런히 배우셔서 自身의 人格을 健全케 합시다. 서로 서로 사랑하고 동정하여 團結力을 더욱 공고하게 하읍시다.

獨立이란 본 뜻이 내가 내 힘을 믿고 내가 내 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을 말함이요. 이 반대로 남의 힘만 믿고 남의 힘을 依支하여 사는 것을 奴隸라 하나니 만일 우리가 이름으로는 獨立運動을 한다고 하고 사실은 다른 나라들의 關係만 쳐다보고 기다린다면 이는 독립운동에 큰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속 外國의 關係와 세계의 時運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할만한 힘이 있을 후에야 可히 이용치 않으리까. 내가 일찍 여러 번 말하기를 『참배나무에는 참배가 열리고 돌배나무에는 돌배가 열리는 것처럼, 독립할 資格이 있는 國民에게는 獨立國의 열매가 있고 노예될 만한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亡國의 열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독립할 만한 資格이라는 것은 곧 독립할 만한 힘이 있음을 이룸이외다.

우리는 島山の 이러한 말에서 民族自主思想, 민족自力更生主義의 기본 원리를 읽을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기르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活路와 운명을 自主적으로 개척하려는 것이 自力更生の 근본이다.

그는 힘을 기르자고 강조했다. 참배나무에서 참배가 열리고 돌배나무에 돌배가 열리듯이 독립할 만한 자격이 있을 때 독립할 수 있고, 남의 노예가 될 만한 자격밖에 없을 때에는 亡國民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 독립할 만한 자격이란 무엇이나. 獨立할 만한 힘이다.

2. 民族의 自覺과 自信

도산은 민족이 獨立할 만한 資格 즉 민족의 힘을 키우기 위하여 어떤 構想을 하였고 어떤

事業을 일으켰고 어떤 運動을 벌이자는가.

도산은 理論家이면서 實踐家였다. 思想家이면서 실제적 運動家였다. 이 兩者를 겸비하기는 至難하다. 이론에 밝은 사람은 實際에 어둡고 실천에 뛰어난 사람은 思想이 빈약하기 쉽다. 그러나 도산은 兩者를 겸비한 지도자였다.

그는 지도자로서 세 가지의 特性이 있었다. 첫째로 遠大한 構想力을 갖고 있었다. 그는 학교 교육은 中學校 二學年밖에 못다녔다. 그는 학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의 體驗에서 배웠고 生活에서 배웠다. 특히 獨立革命運動의 實踐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어려서 儒敎교육을 받았고, 中國 近代의 사상가 梁啓超의 사상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世界 여행의 見聞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기독교 정신에서 많이 배웠다.

그는 民族의 百年大計를 구상하는 遠祖的 眼目과 公正한 事理判斷을 하는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였다.

둘째로 그는 탁월한 組織力을 갖고 있었다. 그는 組織의 天才였다. 그가 민족의 獨立과 발전을 위하여 일생동안에 만든 組織과 團體는 十餘개가 넘는다. 敎育기관으로는 漸進學校・大成學校・東明學園・青年學友會・興士團을 만들었다. 社會的 事業體로서는 共立協會・大韓人國民會・北美實業株式會社・太極書館・馬山洞 磁器會社 등이 있다. 또 政治的 단체로서는 新民會・上海臨時政府・朝鮮獨立黨 등이 있다. 조직과 단체를 만들지 않고는 大事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최근의 여러 지도자들 중에서 島山만큼 조직력이 뛰어난 분이 없다.

최근 百年 동안에 우리 先覺者들이 救國運動, 民族運動, 사회운동의 단체로서 만든 조직이 數百이 넘는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모두 死滅해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1913년에 도산이 창건한 興士團이라는 社會敎育運動의 단체가 63년동안 온갖 시련과 苦難 속에서 꾸준히 存立發展해 왔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놀라운 奇蹟의 하나다. 그것은 도산의 組織力이 뛰어났었기 때문이다.

셋째로 도산은 투철한 實踐力을 갖고 있었다. 그가 구상한 民族사상이나 運動을 그는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실천했다. 실패하면 구상을 가다듬어 다시 새로운 시도를 했다. 그는 不退轉의 意志가 있었고 百折不屈의 용기가 있었다. 그가 一生동안에 十餘個의 단체와 조직을 만들고 中樞的 지도자가 되어 죽는 날까지 實踐운동을 계속했다는 것은 그의 정신력과 愛國魂이 얼마나 강한가를 가장 잘 나타낸다. 그는 구상력과 조직력과 실천력을 한 몸에 兼備한 뛰어난 지도자였다.

도산은 民族의 自覺을 촉구하고 민족적 自信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急先務라고 생각했다. 힘은 自覺과 自信의 產物이다. 민족의 자각과 자신을 촉구하기 위하여 島山은 「同胞에게 말하는 글」을 발표했다.

도산이 직접 붓을 들어 쓴 글은 몇편의 편지와 日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도 더러는 散失

되었다.

1924年(49歲) 도산은 日帝의 虐政下에 희망과 勇氣와 自信을 잃고 신음하는 同胞들에게 民族의 희망과 용기와 자신을 주기 위하여 國內同胞에게 글을 보냈다.

도산은 中國 北京에 와서 그 당시 東亞日報의 신문기자로 있는 春園 李光洙를 북경으로 오게 했다. 도산은 8日間 북경의 여관방에서 그의 思想과 메시지를 春園에게 口述하였고 춘원은 그 글을 받아 썼다. 이 글은 도산이 心血을 기울여서 구상한 民族自主思想의 體系다. 이 글은 甲子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甲子論說」이라고도 하고 「동포에게 告하는 글」이라고도 한다.

춘원은 이 글을 가지고 歸國하여 1925年 正月에 東亞日報에 게재했다. 朝鮮總督府에 의하여 게재가 금지되고 또 더러는 削除되었다. 1926年 홍사단의 기관지인 「東光」誌에 나머지 부분이 게재되었다.

이 글은 모두 十個項目으로 구성된다. 1. 序論 2. 主人論 3. 合同論 4. 指導者論 5. 着實論 6. 實踐論 7. 事業論 8. 大韓學生論 9. 青年論 10. 情誼敦修論이다.

도산은 이 글의 서론에서 「하고 싶은 뜻을 참지 못하여 전달될 만한 限度 안에서 말씀으로 몇 가지를 들어 묻고 씁니다」라고 했다.

日帝下에서 島山은 言論과 表現의 自由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상을 자유 자재로 펴지는 못했다. 그는 많은 制約을 받으면서 甲子論說을 썼다. 이 글은 島山이 우리 민족에게 보내는 위대한 遺言書요 피맺힌 의침이요, 소중한 遺産이다.

우리는 도산 思想의 核心과 精粹의 結晶體를 이 글에서 볼 수 있다. 이 글은 1808年 12月에서 1809年 3月에 이르기까지 十四회에 걸쳐 伯林아카데미에서 愛國의 철학자 피히테가 외친 「독일 國民에게 告한다」의 名雄辯과 그 精神에서 一脈相通한다. 9個項目의 제목만 보아도 도산이 우리에게 무엇을 외치고자 하였는지를 능히 알 수 있다. 甲子논설은 우리가 반드시 한 번 읽어보아야 할 민족의 위대한 文章이다.

甲子논설의 序論에서 우리는 島山の 韓民族觀을 볼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根本이 優秀한 民族이요

도산은 한국민족의 性格과 才能과 素質이 근본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론에서 이런 요지를 말했다. 東洋 三國인 韓·中·日을 볼 때에, 중국은 大陸의인 성격이요, 日本은 海島의 성격이요, 韓國은 半島의 성격이다. 그런데 半島의 성격은 민족 발전에 가장 合當한 장점을 갖는다. 우리는 西洋의 新文化를 受容하는데 일본 보다 때가 늦었고 또 그 당시의 우리의 政治지도자들이 歷史와 時勢를 보는 눈이 어두워 鎖國으로 흘렀기 때문에 오늘의 不幸과 不運에 빠지게 된 것, 뿐이다. 그는 우리 민족의 根本優秀性을 확신했다. 다만 기회와 情勢가 如意치 못하여 一時的으로 民族의 悲運에 빠졌을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민족에 대하여 어떠한 態度를 가져야 하느냐. 도산은 세 가지의 태도를 지적한다.

첫째는 悲觀的 태도와 樂觀的 태도요.

둘째는 不平視하는 태도와 惻隱視하는 태도요.

셋째는 主人的 태도와 손님적 태도다.

우리는 마땅히 樂觀的 태도와 惻隱視하는 태도와 主人的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도산은 갈파했다.

자기 민족의 現在와 將來, 素質과 天分에 대하여 비관하고 不平하고 傍觀視하여 民族的 劣等感, 민족적 自己卑下, 敗北的 民族觀, 虛無의 민족관을 가질 때 민족의 힘은 도저히 생길 수 없다. 힘은 自信에서 생긴다. 個人的 自信에서 개인적 힘이 생기고 민족적 자신에서 민족적 힘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에 대하여 樂觀的 태도와 측은시하는 태도와 主人的 태도를 가져야 하는 근거와 까닭이 무엇이나.

民族獨立이라는 우리의 目的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러므로 민족 前途에 대해서 樂觀視해야 한다. 또 우리는 민족사회에 대하여 측은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측은시하는데서 서로 돕고 아끼고 희생하고 奉仕할 마음과 行動이 생기기 때문이다.

도산의 글을 몇 구절 인용하기로 한다.

지금의 우리 民族이 道德的으로 知識으로 여러 가지 處事하는 것이 부족하다 하여 무시하는 이가 있으나 우리 민족은 근본적으로 무시할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氣質로 아름다운 山川에 生長하여 아름다운 歷史의 教化로 살아온 민족이므로 根本이 優秀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一時 불행한 경우에 처하여진 것은 다만 歐美의 文化를 남보다 늦게 수입한 까닭입니다. 일본으로 말하면 歐美와 교통하는 첫어구에 처하였으므로 구미와 먼저 교통이 되어 우리보다 新文化를 일찍 받게 되었고 中國으로 말하면 아세아 가운데 큰 幅圓을 점령하였으므로 구미 각국이 중국과 교통하기를 먼저 注力한 까닭에 또한 新文化를 먼저 받게 되었으나 오직 우리는 그러한 경우에 처하지 아니하였고, 東西의 新文化가 처음으로 오는 당시의 政權을 잡았던 자들이 몽매중에 있었으므로 新文化가 들어움이 늦었습니다. 만일 우리 민족이 日本이나 중국에 歐美文化가 들어올 그때에 같이 그 新文化를 받았더라면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이나 중국 민족 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일본 민족은 海島的 성질이 있고, 중국 민족은 大陸의 성질이 있는데 우리 민족은 가장 發展하기에 합당한 半島의 성질을 가진 민족입니다.

근본 우수한 地位에 처한 우리 민족으로서 이와 같이 不幸한 경우에 처하여 남들이 劣等의 민족으로 誤解함을 당하여 스스로 憤하고 스스로 측은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은 鳥山의 韓國民族觀과 우리 민족의 뒤떨어진 原因에 대한 도산의 診斷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도산은 「主人論」에서 民族에 대한 主人精神을 특히 강조했다. 그의 주인론의 골자는 이렇다. 우리는 민족에 대하여 主人精神과 손님정신을 가질 수 있다. 주인정신이란 무엇이나. 責

任정신이다. 손님정신이란 무엇이나, 방관정신이다.

歷史의 방척석에 앉아 第三者的 방관정신을 가지고 남의 일처럼 바라다 보는 것이 손님정신이다. 그러나 주인정신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민족에 대하여 主人的 責任意識을 가져야 한다. 주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주인이 있다. 하나는 참 주인이요, 또 하나는 가짜 주인이다. 참 주인은 實質上의 주인이요 가짜 주인은 名義上의 주인이다.

民族의 참 주인은 「民族社會에 대하여 永遠한 책임심」을 갖는다. 그러나 가짜 주인은 一時的 責任심을 느낄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갈구하는 것은 民族의 참 주인이다. 민족의 참 주인만이 민족에 대하여 영원한 責任心을 느끼고 民族社會의 일을 자기 일로 알고 민족을 건지기 위한 구체적 方法과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과 방법에 따라서 죽는 날까지 민족을 위하여 專心 努力한다. 그래서 도산은 우리에게 「당신은 이 나라의 참 主人입니다. 가짜 主人입니다」하고 준엄하게 물었다. 島山의 主人精神은 표현을 고치면 自主정신이요, 主體性, 主體意識이다. 一時的 흥분이나 감격으로 하는 感情的 愛國運動은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참된 主人精神을 가지는 자만이 진정한 愛國運動을 시종일관 실천할 수가 있다.

도산의 主人精神에 관한 몇 句節을 인용한다.

물노니 여러분이시여! 오늘 大韓의 主人되는 자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 民族社會에 대하여 責任感이 있는 이는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이는 客이다.

참주인은 무엇이나.

우리 민족사회에 대하여 영원한 責任心을 진정으로 품는 주인이다.

우리가 한 때에 우리 민족 사회를 위하여 뜨거운 눈물을 뿌리는 때도 있고 분개한 말을 토하는 때도 있고, 눈물과 말뿐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하여 몸을 위협한 경우에 던지는 때도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主人인 줄로 自處하면 오해입니다. 지나가는 客도 남의 집에 慘變이 있는 것을 볼 때에는 눈물을 흘리거나 분한 말을 토하거나 또 그 집의 危急한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主人이 아니요, 客이기 때문에 그때 한때 그럴 뿐이요 그 집에 대한 영원한 책임심은 없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고 求하고자 하는 주인은 우리 민족사회에 대하여 영원한 責任心을 진정으로 품는 주인입니다. 진정한 주인에게는 悲觀도 없고 樂觀도 없고 질투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제 일인고로 오직 어찌하면 우리 民族社會를 건질까 하는 責任心 뿐입니다. 우리의 前途는 낙관이다 비관이다 하는 것이나 大韓民族의 현상은 측은하다 밋다 하는 것이나 모두다 客으로서 하는 말이지 주인이 할 말은 아닙니다.

자기의 민족사회가 어떠한 危難과 悲運에 처하였든지 자기의 同族이 어떻게 못나고 잘못하든지 자기가 민족을 위하여 하던 일이 몇 번 失敗하든지 자기 민족사회의 일을 一分一秒간에도 버리지 아니하고 또는 자기의 能力이 부족한 부족하든지 다만 자기의 至誠으로 자기 민족사회의 處地와 경우

를 의지하여 그 민족을 건져낼 具體的 계획을 세우고 그 방침과 계획대로 자기의 몸이 죽는 때까지 努力하는 이가 그 민족사회의 책임을 중히 여기고 일하는 主人이다.

우리 社會에는 민족의 참 主人이 많은가 적은가. 도산은 적다고 보았다. 그래서 「永遠한 책임심을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는 일꾼은 드물게 보았다」고 그는 개탄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참 主人입니까.」 島山の 이 물음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한 번 엄숙히 反問해 볼 필요가 있다. 民族의 自主力, 根本力을 構築하자는 것이 도산의 힘의 사상의 핵심이다. 그러면 民族의 힘은 어디서 생기는가. 민족의 힘을 構成하는 要素가 무엇인가. 島山은 여기에 대해서 三大資本 同盟貯蓄論을 강조했다.

한 민족이 힘 있는 민족이 되려면 다음 세 가지의 자본을 저축해야 한다.

첫째는 金錢의 자본, 즉 經濟的 자본이요.

둘째는 知識의 자본 즉 精神的 자본이요.

셋째는 信用의 자본 즉 道德的 자본이다.

이 三大자본이 많이 저축되면 저축되는 만큼 민족의 힘이 강해지고 이 삼대자본이 저축 안 되면 안되는 만큼 민족의 힘은 弱해진다. 三大자본의 저축의 多寡가 민족의 힘의 多寡를 결정한다. 도산은 이렇게 말했다.

힘을 준비함에는 특별한 새 主義와 새 方法을 연구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근본 정한 주의와 方法을 貫徹할 뿐이외다. 개인 개인의 힘이 있기 위하여 健全한 人格을 作成하며, 각개인이 분리하지 아니하고 集合하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神聖한 團結을 이루고자 하옵세다. 건전한 인격을 이루기 위하여 四大精神과 三大育을 하자고 하옵세다.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眞實하여 信用의 자본을 동맹저축하옵세다. 한 가지 이상의 學術이나 技藝를 學修하여 전문직업을 감당할 만한 知識의 자본을 동맹저축하옵세다. 자기 收入에서 十分之二 이상을 저금하여 千圓(그 당시의 월원은 지금의 三천원 정도)이상의 金錢의 자본을 동맹저축 하옵세다. 이 주의와 이 方針이 곧 우리의 힘을 豫備하는 바른 길이요 順序이외다.

후진국가의 近代化理論, 사회 開發 理論을 제창하는 많은 학자가 민족의 經濟的 資本蓄積을 강조한다. 그러나 도산은 경제적 자본形成 이외에 知識과 기술이라는 정신적 자본의 형성을 역설했고, 또 그 보다는도 信用의 자본 즉 道德的 자본의 形成을 더욱 역설했다. 이것이 도산의 民族資本形成論의 특색이다. 경제적 자본만으로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자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社會의 精神的 主軸, 倫理的 기초를 이루는 信用의 자본, 도덕적 자본이다. 한 사회의 신용의 자본이 무너지고, 도덕적 자본이 붕괴할 때 그 사회는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다. 신용은 人間存立, 民族번영의 근본이다. 孔子는 일찌기 無信不立의 哲理를 강조했다. 신용이 없으면 개인이건 사회건 국가건 튼튼하게 설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경제에서 흥하고 道德에서 亡해가는 先進工業社會들이 있다. 경제적 成長만 추구하고 道德

的 成長이 뒤따르지 않을 때 그 사회는 精神的 荒廢 때문에 부패 타락의 함정에 빠진다. 利의 追求에 못지 않게 正義의 追求가 필요하다.

人間關係의 기본질서인 信用이 붕괴될 때 그 사회는 存立과 번영이 불가능하다. 島山은 在美교포들에게 三大信用의 確立을 역설했다.

1. 한국인의 말은 保證手票처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2. 한국 노동자와 기술자에게는 마음놓고 일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
3. 한국인의 상점에서는 안심하고 물건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三大信用의 기초가 확립될 때 우리는 미국 사회에서 마음대로 취직도 하고 돈도 벌고 장사도 하고 尊敬과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고 도산은 역설했다.

島山이 民族의 資本으로서 신용이라는 도덕적 자본을 딴 어느 차본 보다도 강조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事物의 핵심을 찌른 卓見이다.

그는 자본을 저축하되 혼자서 하지 말고 同盟저축하자고 했다. 島山은 항상 同盟을 강조했다. 동맹은 서로 共同目標, 공동약속을 수립하고 공동 努力을 하는 것이다. 個人이 혼자서 무슨 일을 하려면 挫折하거나 낙심하기가 쉽다.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共同目標, 共同行動을 취하는 同志가 많을 때 우리는 커다란 힘과 용기를 얻는다. 도산은 민족의 자본 저축을 效果的 能率의으로 하기 위하여 同盟저축론을 강조했다. 도산은 동맹저축 이외에 동맹 讀書, 동맹 作業, 동맹 체조 등을 역설했다. 同一한 目標를 志向하는 多數人이 共同約束下에 서로 협동하여 목표를 추구하는 同盟의 方法은 분명히 훌륭한 方法이다. 도산은 특히 동맹 修練을 강조했다. 個人수련보다 동맹수련은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다. 도산은 協同精神을 가장 강조하였거니와, 동맹 修練, 동맹저축은 협동정신의 具體的 表現의 하나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우리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큰 소망을 가집니다. 나는 우리 민족의 本質에 대하여 조금도 悲觀을 품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넉넉히 大事業을 이룰 民族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옳은 것으로 깨달은 것은 利를거나 害를거나 成하거나 敗하거나 그냥 꾸준히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나의 天職이요 本務인 줄을 깨달읍시다. 同志제군이여, 우리 앞에는 順境보다도 逆境이 많습니다. 쉬운 것보다도 어렵고 險한 것이 많습니다. 大韓民國을 건지려는 우리 무리는 이것 저것에 彷徨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自覺으로 세운 主義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뿐이외다. 다시 부탁하노니 여러분 同志는 부지런히 배우셔서 自身의 人格을 健全케 합시다. 서로 서로 사랑하고 同情하여 團結力을 더욱 공고하게 하읍시다. 한 분이라도 個人을 本位로 하지 말고 오직 우리 홍사단을 本位로 하읍시다. 배우는 것도 洪사단을 위하여 돈을 버는 것도 洪사단을 위하여 하읍시다. 이때는 특별히 犧牲的精神을 요구하는 때입니다. 이리하여 우리 洪사단을 본위로 하지 말고 우리의 國家와 民族을 본위로 하읍시다.

사랑하는 同志 여러분이여, 이 때가 어름어름할 때가 아니외다. 篤心을 품고 기어히 불쌍한 大韓

사람을 건지기 위하여 非常한 努力을 다할 때이외다. 나는 이제부터 전보다 더욱 意志의 힘을 強固하게 하여 세상이야 비웃든지 칭찬하든지 돕든지 헐하든지 미워하든지 믿든지 의심하든지 다 不顧하고 이것이 우리 民族을 건지는데 합당한 길이라고 깨달으면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에서 島山の 나라사랑의 투철한 精神과 民族을 위하여 헌신적 努力을 바치는 뛰어난 先覺的 지도자의 壯한 義氣를 발견한다.

도산은 힘있는 민족, 自立하는 민족을 만들기 위하여 民族의自覺의 추구와 민족적 自信의 회복을 가장 역설했다. 「우리는 根本이 우수한 민족」이라고 스스로를 믿는 肯定的 民族觀, 적극적 민족관의 確立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精神的 課題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먼저 민족적 자신부터 회복해야 한다.

3. 民族的 訓練과 改造

도산처럼 訓練을 강조하고 改造를 역설한 분이 없다. 훈련과 개조는 島山思想의 核心이다. 첫째도 훈련, 둘째도 훈련이요, 셋째도 개조, 둘째도 개조다.

모든 偉大한 것은 훈련의 產物이다. 훈련이 天才를 만들고 훈련이 선수를 만들고 훈련이 名人을 만들고 훈련이 大人物을 만든다. 훈련받은 군대는 秩序整然하고 훈련받지 않은 군대는 烏合之卒로 전락한다. 훈련받은 國民과 훈련받지 않은 국민은 天壤之差가 있다.

훈련해야만 개조가 되고 개조가 되려면 반드시 훈련해야 한다. 個人訓練으로 개인의 人格改造를 하고, 民族훈련으로 國民의 性格改造를 하자. 이것이 도산의 訓練과 개조의 哲學의 핵심이다. 그는 특히 우리 국민에게 二大訓練을 강조했다.

첫째는 人格訓練이요.

둘째는 團結訓練이다.

島山은 「青年에서 呼訴함」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諸君이여, 일은 힘의 產物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가. 만일 그것을 믿고 힘을 찾는다면 그 힘이 어디서 오겠는가. 힘은 健全한 人格과 鞏固한 團結에서 난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러므로 人格訓練과 團結훈련, 이 두 가지를 청년제군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바다.

오늘 일반 민중에게 큰 기대를 많이 가진 제군, 또 스스로 큰 힘을 지고있는 제군이 하여야 될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하고 가장 힘쓸 것은 인격훈련과 단결훈련, 이 두 가지라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가 현재 우리 生活에 직접 관계가 없는 듯이 생각하여 冷淡視하는 이도 있고 또는 이때가 어느 때라고 인격훈련이나 단결훈련같은 것을 하고 앉아 있겠느냐고 이것을 배격하는 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 때이기 때문에 인격을 훈련하고 단결을 훈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 大韓青年이 인격훈련과 단결훈련을 하고 아니하는데 우리의 死活問題가 달려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일찍 團體生活의 훈련이 부족한 民族인 것을 自認치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다른 나라 사람보다 특별히 團結을 훈련하여 公高한 結合力에 이르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이 인격훈련과 단결훈련을 하고 아니하는데 民族의 死活問題가 달렸다고 믿고, 도산은 우리 국민에게 二大훈련을 특히 강조했다. 왜 二大훈련이 필요한가. 힘은 健全한 人格과 公高한 단결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힘이 있으려면 먼저 건전한 인격을 形成해야 되고, 건전한 인격들이 모여서 磐石과 같이 강한 단결을 이루어야 한다. 힘의 二大源泉이 건전한 인격과 公高한 단결이다. 그러므로 人格訓練과 단결훈련을 우리는 제일 먼저 힘써야 한다. 약한 돌과 재목으로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없다. 집의 基本要素인 돌과 재목이 튼튼해야 한다. 그리고 재목이나 돌이 다 제자리에 바로 놓여 서로 굳게 結合되고 단결되어 있어야 한다.

國家建設, 民族建設의 원리도 마찬가지다. 社會의 基本的 構成分子인 하나 하나의 국민이 먼저 健全한 人格의 所有者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인격들이 굳게 뭉쳐서 公高한 단결과 協同을 이루어야 한다. 내가 나 하나를 건전한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愛國의 根本이라고 도산은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거든 그대가 먼저 健全한 人格이 되라.

이 말에서 우리는 島山の 次元이 높은 새로운 愛國觀을 발견한다. 무엇이 애국이나. 내가 나를 健全人格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건전한 인격으로 만드는 것을 그는 여러가지 方法로 表現했다. 健全人格, 人格革命, 自我革新, 人間改造, 自助 등 모두가 같은 뜻이다.

島山은 특히 1930年代에 人格革命의 필요를 국민에게 강조했다. 모든 한국인이 먼저 힘쓰고 가장 힘써야 할 것은 國民 各自의 人格革命이다. 인격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人格, 새로운 國民이 되자는 것이요. 그렇게도 되지 않고서는 나라의 基本力, 自主力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면 건전인격은 어떤 內容과 要素를 갖추어야 하는가. 島山은 德體知의 三要素를 든다. 건전 인격은

첫째로 務實 力行 忠義 勇敢의 四大精神을 갖는 道德的 性格이요.

둘째로 氣力이 強壯한 튼튼한 몸이요.

셋째로 한 가지 이상의 專門知識과 生産技能을 갖는 것이다.

「德體知 三育을 同盟條件하에 健全한 人格을 짓자」고 도산은 의쳤다. 흔히 知德體를 말한다. 知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이 德이고 그 다음이 체라고 한다. 그러나 島山은 이 순서를 바꾸어 덕체지라고 했다. 도산의 人格觀과 價値觀과 人生觀에 의하면 인격의 근본은 德性이요 그 다음에 튼튼한 몸이요, 제일 나중에 知性이라고 보았다. 덕체지는 價値의 순서를 나타낸다. 덕체지의 三要素를 갖추는 때 健全人格이 된다. 최근에 全人教育을 강조한다. 온전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基本目標다. 도산은 全人이란 말 대신에 健全人格이라고 했다. 1939

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은 줄 압니다. 物産獎勵도 해야 되고, 문화운동도 해야 하고 발명도 힘써야 하고 할 일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근거되는 바는 人格革命이라고 생각합니다. 民族變化란 말씀이요. 이것 또 春園式의 民族改造論이구나 하고 비웃을는지 모릅니다만 하여튼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人格革命인 줄 압니다. 우리는 서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서로 믿고 일하는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당파가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것이 亡種之民의 인격이란 말씀이예요.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될 때의 心理를, 인격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던 말씀이요. 이런 인격을 가진 인간들이 무엇을 해요. 오-이렇게 말하면 이러한 인격을 이렇도록 培養하는 惡한 制度를 타파해야지, 지금쯤에 앉아서 케케 묵은 人格修養이란 무슨 수작이나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에 찬성합니다. 나쁜 제도를 타파하지 않으면 그러한 훌륭한 인격을 내기가 불가능할 줄 압니다. 그러나 나쁜 제도를 타파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인격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나 亡種之民의 인격으로 무슨 社會革命입니까. 한이까 根幹은 인격혁명에 돌아가고 맙니다. 어느 何歲月에 인격혁명을 하여 가지고 사회혁명을 하느냐고 반격을 할는지 모릅니다만 우리 사회에 인격혁명만 이가 한 해에 열 사람이면 열 사람, 스므 사람이면 스므 사람, 이같이 늘어갈수록 우리 사회는 좋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人格입니다. 가시나무에 가시만 열리고 포도나무에 포도만 열리는 것입니다. 인격혁명을 못한 이는 제 아무리 나쁜 사회제도를 타파하여도 다시 나쁜 제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 보시오. 같은 데모크라시가 똑 같은 理論을 가진 데모크라시가 멕시코에 떨어진 것과 아메리카에 떨어진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본 바탕이 그러면 아무리 좋은 씨라도 글렀단 말씀이야요.

1935年 天道敎의 중진인 鳳山 李鍾麟씨와의 문답에서 島山은 國民의 人格革命을 역설했다. 인민혁명으로 새 國民·새 民族·새 性格이 되자는 것이다. 인격훈련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協同훈련 단결훈련이라고 도산은 생각했다. 그는 民族의 結合과 단결을 가장 강조했다. 그의 團結哲學, 協同思想을 우리는 「合同과 分離」라는 글에서 볼 수 있다.

합동은 民族興旺의 원리요 분열은 민족衰亡의 근본임을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合同하면 흥하고 분리하면 亡하며, 합동하면 살고 분리하면 죽는다. 이 모양으로 합동이 필요하다는 理論도 私席이나 공석이나 신문이나 잡지에 많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大韓사람은 합동해야 된다는 이론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족의 개개인은 과연 합동의 필요를 切實하게 깨달았는가, 이것이 疑問입니다.

남더러 합하지 않는다. 偏黨만 짓고 싸움만 한다고 원망하고 꾸짖는 그 사람들만 다 모이어서 합동하더라도 적어도 몇百萬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大韓을 보면 합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합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편당을 짓는가, 왜 싸움만 하는가 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꾸짖는 소리가 大韓天地에 가득 찼으니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대한사람은 合同的인 것이요, 分離的인 것으로 알 것이요, 또 오늘날 대한 사람은 합동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듯 합니다.

우리 무리는 이 합동에 대하여 主人된 자의 資格으로 책임을 지고 합동의 방법을 연구하며 합동하는 行爲를 實踐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은국민이 協同혼련을 힘써 합동하는 민족이 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민족의 興亡盛衰를 左右할 근본문제의 하나다.

鳥山은 合同을 강조하되 두 가지 原則을 특히 역설했다.

첫째 民族的 感情보다도 민족적 事業을 위하여 합동해야 하며

둘째 합동을 하려면 共通的 信用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二大原則은 특히 중요하다.

서로 감정으로 뭉치지 말고 서로 일로 뭉치자고 하였다. 왜냐. 한 배의 감정으로 뭉친 합동은 흔들리기 쉽고 깨어지기 쉽다. 확고한 目標과 共同의 事業을 중심으로 뭉친 합동만이 견고하고 깨어지지 않는다.

또 서로 합동하려면 서로 믿어야 한다. 信用이 없는 곳에 합동은 불가능하다. 相互信用은 합동과 단결의 必須條件이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서로 믿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합동과 단결이 안된다. 그래서 그는 합동의 前提條件으로서 共通的 信用을 역설했다. 도산은 이렇게 말했다.

첫째는 全民族이 共通的으로 같이 희망하고 이행할만한 條件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요구하는 합동은 民族的 感情으로 하는 합동이 아니요, 민족적 사업에 대한 합동입니다.

둘째는 共通的信用을 세울 것입니다.…… 서로 신용이 없으면 방침이 서로 같더라도 합동될 수 없고 서로 信用이 없으면 公同한 目的과 方法을 세우기부터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民族社會처럼 합동이 되지 못하고 分離한 상태에 있는 것은 公同한 方針을 세우지 못함과 그밖에 다른 이유는 많지만 그중의 가장 큰 이유는 大韓人이 大韓人을 서로 믿을 수 없는 것이요, 서로 믿을 수 없이 된 것은 서로 속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중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무슨 글을 쓰든지, 그 말과 그 글을 정면으로 듣거나 보지 않고 그 뒤에 모은 黑幕이 있는가하고 찾으려 합니다. 同志라 친구라 하고 무엇을 같이 하기를 간청하드라도 그 간청을 받는 사람은 이것이 또 무슨 험잡이나 아닌가 하고 참마음으로 응하지 아니합니다.

슬프다! 우리 民族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민족의 생활의 소위 下級이라고 일컫는 平民들은 실제로 勞働力作하여 살아 왔거니와 소위 中流이상 상류이상이라는 이들은 그 생활하는 것이 농사나 장사나 자신의 力作을 의뢰하지 아니하였고 그 생활의 유일한 길은 험잡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네들은 거짓말하는 것이 자기의 生命을 유지하는 유일한 方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가족과 뼈에 젖어서 良心의 아무 꺼리낌 없이 사람을 對하고 일에 臨하며 속일 궁리부터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後進인 청년에게까지 전염이 되어 大韓社會가 거짓말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아, 슬프다. 우리 민족이 이 때문에 合同을 이루지 못하였고 서로 합동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死亡에 임하였습니다. 사망에 임한 것을 알고 스스로 건지기를 꾀하나 아직도 서로 믿을 수 없는 때문에 民族的合同運動이 실현되지 못합니다. 大韓民族을 참으로 건질 뜻이 있으면 그 건지는 法을 멀리 구하지 말고 먼저 우리의 가장 큰 원수되는 속임을 버리고 각개인의 가슴 가운데 眞實과 正

直을 모시어야 하겠습니다. 大韓 사람은 대한 사람의 말을 믿고 대한 사람은 대한 사람의 글을 믿는 날에야 대한 사람은 대한 사람의 얼굴을 반가와하고 대한 사람은 대한 사람으로 더불어 合同하기를 즐거워 할 것입니다.

만일 大韓民族을 건질 뜻이 없으면 모르거니와 진실로 있다고 하면 네 가족 속과 내 가족 속에 있는 거것을 버리고 참(誠)으로 채우자[充]고 거듭거듭 맹서합시다.

鳥山이 半世紀전에 외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강한 呼訴力과 說得力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肉迫해 온다. 그 때에도 不信社會의 요소가 강했다. 오늘도 불신사회적 요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不信社會의 除去와 信用社會의 건설은 우리 민족이 당면한 基本問題의 하나다. 힘은 合同과 단결에서 생기고 합동과 단결은 서로 共通事業과 共通信用에서 생기고 신용은 서로 正直하고 속이지 않는 데서부터 생긴다. 그러므로 참되고 眞實하기를 힘써야 한다. 그래서 鳥山은 우리 국민에게 眞實革命을 가장 강조하고 信用의 자본을 역설했다.

서로 협동하는 것을 도산은 여러가지로 표현했다. 互助라고도 하고 神聖團體라고도 하고 鞏固한 단결이라고도 하고 또 情誼 敦修라고도 했다.

도산은 協同과 단결의 본보기를 「기러기」라는 새에서 발견했다. 그래서 도산은 기러기精神을 강조하였다. 한국인에게 가장 필요하면서 가장 결핍된 것이 기러기精神이다. 우리 민족이 興旺하고 번영하려면 기러기의 정신과 德을 가져야 한다. 기러기는 模範적인 새다. 우리는 기러기라고 하면 가을의 밤 하늘을 나는 쓸쓸한 새를 연상한다. 이것이 기러기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이미지도다. 그러나 도산의 기러기觀은 다르다.

기러기는 다섯 가지의 뛰어난 德을 갖는다.

첫째는 투철한 方向感覺과 目標意識이다. 기러기는 九萬里長天을 날아도 매열을 헛크러뜨리지 않고 一糸不亂하게 날아간다. 기러기처럼 방향과 목표의 意識이 투철한 새가 없다.

둘째는 놀라운 行動統一이다. 기러기는 독수리처럼 의롭게 날지도 않고 참새처럼 산지사방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같이 날고 같이 쉬고 같이 행동한다.

세째로 단결력이 강하다. 기러기처럼 굳게 뭉치고 단결력이 강한 새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배를 지어 수만리 長天을 힘차게 날아갈 수 있다.

네째로 規律과 秩序의 정신이 강하다. 앞의 새를 뒤의 새가 질서있게 따라간다. 그래서 漢文에는 雁序와 雁行이란 말이 있다. 기러기와 같이 整然한 順序가 안서요 기러기와 같은 規律를 가지고 날아가는 것을 안행이라고 한다.

끝으로 信義의 德이다. 서로 굳게 믿기 때문에 行動統一이 잘되고 規律를 지키고 단결력이 강하다. 기러기처럼 신의의 精神이 두터운 새가 없다.

우리 국민은 기러기의 정신과 덕을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興士團의 마아크를 만들 때에 선비士字를 기러기 모양(士)으로 圖案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도산은 부단한 훈련의 方法으로 개인의 人格改造와 민족의 性格改造를 하자고 역설했다. 도산의 철학은 改造의 철학이요 도산의 사상은 개조의 사상이다. 島山の 民族改造思想은 너무나 유명하다. 春園이 1922년에 天道敎의 기관지인 「開闢」지에 쓴 「민족개조론」은 도산의 개조사상을 설명한 것이다. 1919年 도산이 上海에서 行한 「改造」라는 강연에서도 우리는 민족개조사상의 골자와 근본을 읽을 수 있다.

島山은 인간을 어떻게 보았는가. 도산의 人間觀은 어떤 것인가. 그는 인간을 「改造하는 動物」이라고 보았다. 인간이 딴 동물에서 구별되는 근본요소는 改造能力을 가진 점이다. 동물은 환경에 소극적 순응을 할 따름이다. 그러나 인간은 환경을 能動的으로 개조하는 적극적 自由를 갖는다. 산다는 것은 곧 개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조가 없는 생활은 생활이 아니다. 위대한 개인은 위대한 개조를 하는 사람이요, 위대한 民族은 위대한 개조의 힘을 가진 민족이다. 孔子, 석가, 그리스도의 思想과 事業도 결국은 인간과 사회를 개조하여 이상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島山の 말을 인용한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一生에 힘써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나는 우리 사람의 一生에 힘써 할 일은 개조하는 일이라 하오.

나는 사람을 가리켜서 개조하는 動物이라하오. 이에서 우리가 맹수와 다른 점이 있소. 만일 누구든지 改造의 사업을 할 수 없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거나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일 것이요」

여러분, 孔子가 무엇을 가르쳤소, 석가가 무엇을 가르쳤소, 소크라테스나 톨스토이가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그들이 一生에 많은 글을 썼고 많은 말을 하였소마는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다만 「改造」 두 글자 뿐이요. 예수 보다 좀 먼저 온 요한이 맨처음으로 백성에게 부르짖은 말씀이 무엇이요. 「悔改하라」하였소. 그후에 예수가 맨처음으로 크게 외친 말씀이 무엇이요, 또 「회개하라」하였소. 나는 이 「회개」라는 것이 곧 「개조」라 하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개조할까 또 어떻게 개조할까. 改造의 對象과 方法이 문제가 된다.

도산은 한국의 모든 것을 개조하자고 했다. 自然도 개조하고 社會도 개조하고 生活도 개조하고 습관도 개조하자고 했다. 그러나 그 여러 개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民族의 性格改造요, 精神改造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개조하느냐. 내가 나부터 나를 개조하자고 했다. 그는 自己改造가 民族改造의 시작이요 근본이요 順序라고 하였다.

島山은 民族改造의 大目標, 大事業을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一生동안 분투노력했다. 정말 우리가 한국 민족을 사랑한다면 내가 나부터 나를 개조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민족개조의 첫걸음이다. 내가 남을 개조할 수는 없다. 남더러 개조하라고 권면하고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개조하고 안하고는 그 사람 自身의 決斷과 實踐의 문제다.

自己改造에서 民族改造로 나아가야 한다. 島山の 民族改造의 내용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1. 國土改造 2. 社會개조 3. 생활개조 4. 性格개조 5. 精神改造다.

도산의 말을 옮기기로 한다.

여러분 우리 한국을 개조하여야 하오. 이 행복이 없는 한국, 이 文明되지 않은 한국, 반드시 개조하여야 하겠소.

여러분이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만일 너도 韓國을 사랑하고 나도 한국을 사랑할 것 같으면 나와 우리가 다 합하여 한국을 改造합시다. 즉 이 한국을 개조하여 文明한 한국을 만듭시다.

무엇을 개조하십니까. 우리 한국의 모든 것을 다 개조하여야 하겠소. 우리의 교육과 종교도 개조하여야 하겠소. 우리의 농업도 상업도 개조하여야 하겠소. 우리의 風俗과 습관도 개조하여야 하겠소. 우리의 음식 의복 居處도 개조하여야 하겠소. 우리의 도시도 농촌도 개조하여야 하겠소. 심지어 우리의 江과 山까지도 개조하여야 하겠소.

이 能力 없는 우리 민족을 개조하여 능력있는 민족을 만들어야 하겠소.

民族改造의 의미와 方法과 순서에 관한 島山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자.

어떻게 하여야 우리 민족을 개조할 수 있소. 韓國民族이 개조되었다 하는 말은 즉 다시 말하면 한국민족의 모든 分子 각 개인이 개조되었다 하는 말이요. 그러므로 한국민족이라는 한 全體를 개조하려면 그 부분인 각개인을 개조하여야 하겠소. 이 각개인을 누가 개조할까요. 누구 다른 사람이 개조하여 줄 것이 아니라, 各自 자기가 자기를 개조하여야 하겠소. 왜 그럴까. 그것은 자기를 개조하는 權利가 오직 자기에게만 있는 까닭이요. 아무리 좋은 말로 그 귀에 들려주고 아무리 귀한 글이 그 눈 앞에 벌려 있을지라도 자기가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자신을 개조합시다. 너는 너를 개조하고 나는 나를 개조합시다. 곁에 있는 김군이 李군이 개조 아니한다고 한탄하지 말고 내가 나를 개조 못하는 것을 아프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암시다.

내가 나를 改造하는 것이 즉 우리 민족을 개조하는 첫걸음이 아니오. 이에서 비로소 우리 全體를 개조할 希望이 생길 것이요.

民族改造는 自我改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자아개조란 무엇이나. 곧 자기의 習慣개조다. 습관이란 말을 性格이란 말로 바꾸어도 무방하다. 民族의 習慣改造運動, 國民의 性格建設運動, 이것이 도산思想의 특색이다. 그는 습관개조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나 자신에서 무엇을 개조할까. 나는 대답하기를 「습관을 개조하라」 하오. 문명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습관이 문명스럽기 때문이요. 야만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습관이 야만스럽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악한 習慣을 각각 개조하여 善한 습관을 만듭시다. 거짓말을 잘하는 습관을 가진 그 입을 개조하여 참된 말만 하도록 합시다. 글 보기 싫어하는 그 눈을 개조하여 책보기를 즐겨하도록 합시다. 게으른 습관을 가진 그 四肢를 개조하여 활발하고 부지런한 사치를 만듭시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까짓 습관 같은 것이야!」하고 아주 쉽게 암니다마는 그렇지 않소. 저 千兵萬馬를 쳐 이기기는 오히려 쉬우나 내 습관을 이기기는 어려운 일이니, 이 일에 一生을 노력하여야 하오.

여러분은 혹 우습게 생각하시리라, 문제는 매우 큰 것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에 이같이 작은 것으로

結末을 지으니가. 그러나 그렇지 않소. 이 세상의 모든 큰 일은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였고, 크게 어려운 일은 가장 쉬운 것으로부터 풀어야 하오.

千兵萬馬를 쳐서 이기기는 쉽지만 자기의 습관을 이기기는 어려우므로 우리는 일생동안 자기의 習慣改造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도산은 말했다.

도산의 民族改造運動은 민족의 性格改造 습관개조 운동이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의 습관과 성격의 개조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一朝一夕에 되는 것이 아니다. 長久한 세월이 걸리는 민족의 社會教育運動이다. 도산은 「개조」라는 강연의 結論을 다음과 같은 의미깊은 말로 맺었다.

韓國民族아! 너희가 개조할 자신이 있느냐?

그러면 民族혼련 민족개조운동의 基本目標가 무엇이냐.

4. 民族的 理想과 使命

민족혼련과 민족개조의 목적은 우린 민족을 最高民族으로 完成하는 것이다. 한국민족을 세계에서 으뜸가는 模範民族, 최고 민족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그것은 엄청나게 높은 민족의 理想이요 使命이다.

우리 민족은 근본이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적 자각과 自信을 가지고 꾸준히 민족적 혼련과 개조를 쌓으면 모든 인류의 尊敬을 받을 수 있는 모범민족, 最高民族이 될 수 있다고 도산은 확신했다. 도산의 民族思想은 民族獨立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민족完成이 그의 究極目標였다. 韓末의 모든 애국지사들의 行動目標은 國權回復이요, 민족의 獨立이었다. 그러나 도산은 그 단계를 넘어서 우리 민족을 道德的으로나 知識的으로나 最高民族으로 形成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島山回想的 높은 이상과 특색이 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進路와 역사의 方向을 밝히는 精神의 위대한 등불이 될 수 있다. 最高民族完成 模範民族完成, 얼마나 높은 이상인가. 한국 민족의 水準, 道德의 수준, 지식적 수준, 文化的 수준 등 모든 수준을 최고경지에까지 높이 끌어 올려서 민족번영의 永遠한 기초를 樹立하려는 것이 도산사상의 根本理念이다. 個人性格이 개인의 운명을 지배하고 國民 성격이 국민의 운명을 결정한다. 性格은 運命의 어머니요, 운명은 성격의 產物이다. 한국 민족의 성격이 어떤 狀態나에 따라서 한국민족의 운명이 左右된다. 그러므로 偉大한 國民性格을 건설하면 위대한 民族運命이 전개된다. 위대한 국민성격의 建設, 이것이 도산의 哲學의 근본이다. 그래서 그는 우리 국민의 人格革命과 自我革新을 가장 강조했다.

그러면 偉大한 國民性格은 어떤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가. 島山은 세 가지 原理를 강조했다.

첫째는 務實 力行 忠義 勇敢의 4大精神이요, 사대정신의 근본은 참의 原理다.

둘째는 사랑의 원리 즉 情誼 敦修사상이다.

세째는 大公主義 즉 民族에 대한 奉仕의 원리다.

도산사상은 참과 사랑과 奉仕의 3大원리를 核心으로 한다.

먼저 4大精神을 설명하기로 한다. 務實力行을 生命으로 삼는 忠義男女를 만들자. 이것이 도산의 人格革命의 근본목표다.

務實은 소극적 표현을 하면 「속이지 말자」요 적극적 표현을 하면 「참되자」다. 務實의 반대는 거짓이요 虛僞다. 무字는 힘쓸 무자다.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하는가. 島山은 實을 힘쓰자고 했다. 그러면 실이란 무엇이나.

實은 (1) 眞實, 誠實의 실이요, (2) 着實, 實質의 실이요, (3) 實力의 실이다. 진실하기를 힘쓰고 착실하기를 힘쓰고 실력있기를 힘쓰자는 것이다.

實에 반대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名이요, 둘째는 虛요, 세째는 僞다. 실의 반대는 名이다. 이름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것이 有名無實이다. 이름과 알맹이를 다 갖춘 것이 名實相符, 名實兼備, 名實雙全이다. 名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實이 중요하다. 이름이 문제가 아니다.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다.

實의 반대는 虛다. 허는 속이 빈 것이요, 실은 알찬 것이다. 실의 반대는 僞요 거짓이다. 이름과 빈 것과 거짓을 버리고 眞實과 實質과 實力을 힘쓰는 것이 무실이다.

島山은 이렇게 말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말아라.

꿈에라도 誠實을 잃었거든 痛悔하라.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君父의 원수는 不共戴天이라 했으니 내 평생에 죽어도 다시는 거짓말을 아니하리라.

먼저 우리의 가장 큰 원수되는 속임을 버리고 眞實과 正直을 모시어야 하겠습니까. 네 가족과 내 가족 속에 있는 거짓을 버리고 참[誠]으로 채우자고 거듭 거듭 맹세합시다

얼마나 높고 준엄한 眞實精神인가.

浮虛는 敗亡의 근본이요, 着實은 성공의 기초의다. 그런데 우리 大韓의 사회상태가 浮虛的인가 着實的인가. 다시 말하면 敗亡的인가, 成功的인가. 오늘은 빈말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요, 그 살아갈만한 일을 참으로 지녀야 사는 세상이다.

우리 靑年이 걱정할 것 두 가지가 있소. 하나는 속이지 말자. 둘째는 놀지 말자, 이 말을 매일

晝夜로 생각하오.

은 국민이 務實의 人間이 되어 務實的 行動과 生活을 하고 무실적 社會를 건설하자. 이것이 도산의 무실主義다. 무실주의의 근본은 眞實主義다.

四大정신의 들째는 力行이다. 역행은 行하기를 힘쓰는 것이다. 역행의 반대는 空理空想, 빈말 빈소리라고 도산은 말했다.

역행은 소극적 표현을 하면 「놓지말자」요, 적극적 표현을 하면 「일하자」다. 鳥山의 사상은 王陽明의 知行一致의 철학과 대동소이하다. 行이 없는 知, 實踐이 없는 理論은 의미와 가치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공리공론을 물리치고 實踐躬行하는 민족이 되자는 것이다. 春園은 「鳥山安昌浩」에서 이렇게 말했다.

도산은 極言했다. 李朝五百年의 역사는 空理空論의 역사였다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조 五백년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위대한 遺産이 적고 오직 甲論乙駁과 그로 인하여 온 참무(讒誣)·탄핵, 비방 殺戮의 빈축, 酸鼻할 기록이 있을 뿐이라고, 심지어 이렇다할 건축물 하나 土木 공사 하나 크게 자랑할 것이 없지 아니하냐고, 空談空論에서 나올 必然한 사물이 爭論과 謀害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고.

그는 庚戌國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나라를 亡하게 한 것이 일본도 아니요 李完用도 아니요. 그러면 우리 나라를 亡하게 한 책임이 누구요. 그것은 나 自身이요. 내가 왜 일본으로 하여금 祖國에 조사(爪牙)를 박게 하였으며, 내가 왜 이완용으로 하여금 조국을 팔기를 容許하였소. 그러면 亡國의 책임자는 곧 나 자신이요.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後進은 선배를 원망하고, 우리 민족의 不幸의 책임을 자기 이외에 돌리려고 하니 대관절 당신은 왜 남만 책망하시오. 우리 나라가 독립이 못되는 것이 아마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고 아프게 뉘우칠 생각을 왜 못하고, 어찌하여 그 놈이 죽일놈이요 저놈이 죽일놈이라고만 하고, 가만히 앉아계시오. 내가 죽일놈이라고 왜들 깨닫지 못하시오.

空理空論를 버리고 力行하는 인간이 되자. 이것이 力行主義다. 務實力行은 栗谷이 강조한 사상이다. 도산은 그것을 오늘에 살리어 韓國民族의 國民思想의 근본으로 삼으려고 했다. 李朝中葉 이후에 民族的 自覺과 學問的 反省이 생기어 實事求是와 利用厚生을 근본으로 하는 實學思想이 나왔다. 李晬光, 韓百謙, 丁茶山, 李德懋, 朴齊家, 李瀾, 申景濬, 金正喜, 朴趾源, 柳恭得, 李書九 모두 다 實學派에 속하는 학자들이다. 도산의 務實力行의 哲學은 實學思想과 동일한 精神과 系列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四大精神의 세째는 忠義다. 忠義는 忠誠과 信義가 합한 것이다. 충성과 신의는 어떻게 다른가. 모두 다 참된 것이다. 인간의 도덕은 二大原理로 구성된다. 하나는 對物原理 하나는 對人原理다. 우리는 늘 사물을 처리하고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간다. 對物關係의 기본 원리가 충성이요 대인관계의 기본원리가 신의다. 일에 대하여 誠實한 것이 忠誠이요 사람에게 대하여

성실한 것이 신의다. 충의는 곧 충성과 신의다.

나는 밥을 먹어도 大韓의 獨立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하려고 하는 위대하고 神聖한 事業의 成功을 虛와 僞의 기초 위에 세우려고 하지 말고 眞과 正의 기초 위에 세우려고 하자.

어떤 神이 無心중에 와서 忽出, 내게 물기를 너는 무엇을 하느냐 할 때에 나는 아무 것을 하노라고 서슴치 않고 대답할 수 있게 하자.

우리는 島山の 이러한 말에서 忠義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 발견한다. 일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고 사람에 대해서 信義를 굳게 지키는 忠義의 國民이 되자는 것이다.

四大정신의 마지막은 용감이다. 용감은 비겁의 반대다. 무슨 일이나 적극적으로 썩썩하고 능동적인 것이다. 島山은 한국민족을 용감한 민족으로 만들자고 했다. 한번 작정한 理想이나 標를 堅忍不拔의 정신과 不退轉의 의지로 변치않고 꾸준히 추구해 나아가는 것이 용감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청년은 泰山같은 큰 일을 준비합시다. 落心말고 겁내지말고 쉬지말고 용감하고 대담하게 나아가십시오. 總督府 司令部라도 당돌히 출입하는 청년이 되시오. 죽을 作定하고 膽大하게 일합시다.

私鬪에怯하고 公戰에는 勇하십시오.

나는 죽음의 공포가 없다.

島山の 용감의 정신이 잘 나타난 말이다. 務實 力行 忠義 勇敢의 四大정신은 간결 명쾌한 가운데 우리 國民의 志向할 精神과 方向을 가장 잘 표현하였다. 도산의 理想的 韓國人像의 핵심을 말한 것이다. 四大정신의 근본은 참이요 眞實이다. 實과 行의 生活, 실과 행의 국민을 만들자는 것이다.

도산사상의 둘째 원리는 사랑이다. 그는 眞實을 가장 강조했고 다음에 사랑을 역설했다. 사랑을 도산은 情誼敦修란 말로도 표현했다. 서로 사랑하기 공부를 힘써서 우리 사회를 사랑의 사회로 만들자는 것이 그의 理想이었다. 그는 기독교思想에서 사랑의 원리를 배웠고 또 實踐했다. 그가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였는가. 그의 말에서 찾아 보기로 하자.

너도 사랑을 공부하고, 나도 사랑을 공부하자. 男子도 여자도 우리 二千萬이 다 같이 사랑하기를 공부하자. 그래서 二千萬 韓民族은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자.

서로 사랑하면 살고 서로 싸우면 죽는다.

죽더라도 同胞끼리는 無抵抗主義를 쓰자.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자. 동포끼리만은 惡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오직 사랑하자.

왜 우리 社會는 이렇게 차오. 혼 혼한 기운이 없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소.

「저마다 혼 혼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얼굴」 이것이 島山이 그리는 새 國民의 새 表情이요, 새 민족의 새 얼굴이다. 서로 사랑하기 工夫를 힘쓰고 同胞끼리는 無抵抗主義를 쓰고, 저마다 혼 혼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얼굴의 새 國民이 되자. 이것이 島山이 그리는 새로운 韓國 社會像이요, 새로운 韓國人像이다.

그는 情誼敎修의 원리를 강조했다. 情誼란 정답고 의좋은 것이요. 敎修는 두텁게 닦는 것이다. 즉 사랑하기 工夫다. 우리 韓國인이 저마다 정의돈수하여 無情한 社會를 有情한 社會로 만들자고 했다.

그의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란 글은 島山の 사랑의 哲學을 명쾌하게 논한 名文이다.

人類中 불행하고 불쌍한 자 중에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자는 無情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요, 福 있는 자 중에 가장 多幸하고 복있는 자는 有情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다.

사회에 情誼가 있으면 和氣가 있고 화기가 있으면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으면 活動과 용기가 있습니다.

情誼없는 大韓民族의 고통은 실로 지옥이외다. 大韓人의 사회는 가시밭이외다. 아무 樂이 없습니다.

情誼는 親愛와 同情의 結合이외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오직 情誼敎修 네 글자에 의지하여 살시다.

島山은 사랑하기 工夫 즉 정의돈수를 하는데 주의할 점을 일곱 가지 들었다. 그가 얼마나 人間心理의 깊은 理解者요 洞察者인가를 알 수 있다.

1. 남의 일에 介意치 말라.
2. 個性을 존중하라.
3. 自由를 침범치 말라.
4. 物質的依賴를 말라.
5. 情誼를 혼동치 말라.
6. 信義를 確守하라.
7. 예절을 존중히 하라.

서로 사랑하기 공부를 힘써 有情한 社會를 건설하자. 이것이 도산의 사랑의 思想이다.

세계는 大公主義 思想 즉 民族에 대한 奉仕의 實踐이다. 나는 나요, 공은 우리다. 나는 적은 것이요 공은 큰 것이다. 우리는 民族이라는 大公을 위해서 奉仕해야 한다. 그것이 또한 人類라는 더 큰 大公에 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島山은 大公主義를 강조했다. 대공주의는 곧 민족에 대한 봉사를 의미한다.

「個人은 민족에 봉사함으로써 自身에 대한 의무와 人類에 대한 의무를 완수한다」라는 말 속에 그의 대공주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나는 島山の 眞實精神과 사랑의 원리와 奉仕의 理念을 설명했다. 島山思想의 集約的表現은 도산의 다음 말에서 찾을 수 있다.

「務實力行으로 生命을 삼는 忠義男女를 단합하여 情誼를 敦修하며 德體知三育을 同盟修練하여 健全한 人格을 지으며 신성한 단체를 이루어 우리 民族前途大業의 기초를 준비함」 「眞理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正義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고 그는 갈파했다.

民族의 自覺과 自信을 강조하고 훈련과 개조를 역설하고 理想과 使命을 제창한 도산의 民族自力更生이 哲學은 현대의 뛰어난 精神的 遺産의 하나다. 이 유산은 앞으로 우리 역사의 進路와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커다란 思想的 指標가 될 것이다.

參 考 書 籍

1. 李光洙 著 島山 安昌浩
2. 朱耀翰 編著 安島山 全書
3. 李光洙 著 民族改造論
4. 安秉煜 著 島山思想